

자기종교 바로 믿을때 타종교 이해

▲월주: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바로 종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경제상황도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물질주의적 세계관이 확산되면서 자초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인들은 지금의 이고동을 극복하기 위해 나의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사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덕: 유교의 경전에는 "물(物)에는 근본과 달단이 있고 일(事)에는 시작과 끝마침이 있다. 무엇을 먼저하고 무엇을 뒤에 해야 하는가를 알게하면 도(道)에 가까울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신이 바로 서고 윤리도덕이 올바르게 되면 정치경제는 저절로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윤리 도덕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종교의 몫이 아닐까요.

▲지덕: 결국 진정한 화합을 통한 자아의 변화와 소외된 자를 구출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국민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종교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광옥: 그동안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은 꾸준히 진행되며 사회가 어려움에 처할때마다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목소리를 함께 해 국민극복의 원동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종교가 먼저 화합할때 국민의 통합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로 지도층을 중심으로한 화합의 노력이 대중들에게 깊게 각인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서로를 이웃 종교인으로 인식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화합적인 종교문화 정착에 힘써야겠습니다.

▲김광옥: 종교간의 화합과 협력에 앞서 각종교의 종파안에서도 진정한 화합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화합을 선도하기 위한 종교계의 화합을 위한 중단 스스로의 변화와 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정근: 일부의 비판자들은 종교 화합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편협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함께 추구하는 진리란 막힘이 없는 것이라 서로 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마음과 다름보다는 자비와 사랑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화합을 외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열려야 할 것은 타종교에 대한 개방보다는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비종교적 삶의 태도나 가치관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의 종교가 가르치는 진리의 본질에 충실함과 동시에 그 울음 넘어서서 종교적 본의가 이 사회에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빛으로 나타 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김동은: 매우 올바른 지적입니다. 종교화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종교만을 절대시하는 편협한 태도인 것입니다. 얼마전에 교황 바오로

2세는 다른 종교에도 진리의 씨앗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종교인은 다 함께 자유를 누리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최근덕: 물론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사랑에 뿌리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믿음으로 흐르게 되지요.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신자들이나 극단론자들은 자기 믿음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 교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단배척이란 것도 결국 자기 중심을 잃은 결과인 겁니다.

▲월주: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거나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극한적인 상황인식으로는 종교간의 화합은 요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종교 내부에서도 종교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외부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는 각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적 현안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모아 발표하거나 시기별로 각 종교별 실천 방안을 모색해 사회적 공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종교인 평화회의도 세미나 개최와 각종교간의 수행체험, 현안에 대한 해결책 공동모색등의 활동을 통해 종교인 통합의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삼소회의의 비구니스님들과 수녀님들 정려님들



월주 총무원장



지덕 한기총회장



조정근 교정원장

4

현대불교 창간 4돌

「적극화합하며」 진언전립

다종교 사회에서의 종교화합은 종교인의 건전한 생활은 물론 국민 화합의 기초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을 파괴하고 타종교의 교리를 비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정치인과 행정관료들까지 편향된 종교관을 드러내 물의를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 '나의종교가 소중하면 남의종교도 소중하다'는 기본적인 종교윤리마저 지키지 않은 결과다.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4주년을 맞아 불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원불교의 대표자들을 통해 종교화합을 위한 길을 모색해 보았다. 각 대표자들에게 문서를 통해 질문하고 그에대한 대답을 좌담 형식으로 꾸었다. ▲조계종 월주총무원장 ▲유교 최근덕상군관장 ▲천주교 김동은신부 ▲개신교 지덕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천도교 김광옥교령 ▲원불교 조정근 교정원장이 참여했다.



김동은 신부



최근덕 성군관장



김광옥 교령

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 이전에 그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전한 종교문화란 방파제를 튼튼하게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종교는 그 사회에 초월적이고 내면적인 가치를 보여 주고 실현시켜 주는 것인데 법률적인 제도에 의존하게 된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덕: 현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 종교 언론은 우리사회가 다종교 사회란 점과 소속종교의 교의속에 바탕을 이루고 있는 사랑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종교를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도 부지런히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조정근: 그렇습니다. 종교 언론은 사회적 공익으로서 객관적이고 화합과 협력을 위한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타종교의 교리를 문제 삼는거나 타종교단체를 비방하는 태도는 근절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 언론인들의 교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신앙하는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봉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이나 양보가 어렵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도 인간의 행복에 대한 소망이라면, 나 자신의 안정과 행복은 나의 가정, 사회,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연결 되어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가족간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가정의 화목이 깨어져서는 안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각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더라도 한 민족으로서의 화목을 깨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덕: 동감입니다. 타종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갖도록 노력하고 타락한 현실에 대한 종교인들의 일차적인 반성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종교지도자들은 사회의 건전한 정신을 이끌어 가기 위한 공동 협력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김광옥: 종교간의 이해를 위해서는 각종교가 신도들에게 타종교의 교리나 신앙방범등을 소개함으로써 이해의 지리를 만들어 주는 일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 현실에 대한 공동 인식과 참여의지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은: 위문 일은 아니었으나 타종교를 이해 시킨다는 측면에서 타종교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사회의 내 있는 각종교 성직자들이 가끔 자리를 같이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 이야기하고, 신도들 사이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대회, 세미나, 공동바자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21세기와 제3밀레니엄이라는 열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종교인들이 먼저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조정근: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의 가르침을 바르고 합리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거나 편협한 태도로 경건(가르침)을 이해하고 그런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의 사회참여라는 측면에서 힘을 합쳐 일을 하려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의 신도들이 각자 신앙생활에 충실하면서도 대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앙실천으로 성숙되어 자연스러운 종교화합의 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최근덕: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종교의 이해와 화합을 위해서는 우선 자기 종교의 근본 교리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사업이나 대화의 장이 자주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자신의 종교를 내세워 누구나 개종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일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임연태 기자 (ytlm@buddhapia.com)

월주 "남의 믿음 내 믿음만큼 소중"

지덕 "대 사회 종교역할 공동 모색"

조정근 "서로의 장점 수용하는 자세"

김동은 "자기 종교만 내세우면 편협"

최근덕 "종교간 대화의 시간 더 많이"

김광옥 "신도에게 타종교 가치 교육"

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서 종교 성직자들의 화합노력은 극명히 보인다 하였습니다.

▲김광옥: 그러한 모임을 통해 우리는 많은 선언문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당면 과제인 종교화합을 위해 공동된 의지를 모아 선언문을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이에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덕: 좋은 말씀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정근: 그러나 일시적인 선언이 아니라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자그마한 노력들도 중요합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태도의 변화를 위한 종교지도자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월주: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타종교 시설물에 대한 훼손 범죄는 어떻게 해서든 근절 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 역시 종교간의 협력을 통해 기울여야 할 당면과제라 생각합니다. 조계종에서는 이와관련된 법안의 제정을 정부에 촉구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천주교 약현성당 소실사건이나 제주도 원명선원 파벌 사건을 보며 성소나 성물의 파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강하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시설물은 예배와 공경의 신성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의 경우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파괴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되어 재발이 방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광옥: 종교의 본분은 사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인도하는 것인데 법령을 만든다면 세상은 더욱 어지러워 질 것입니다. 법령의 제정에 앞서 종교지도자들이 차원 높은 대화와 지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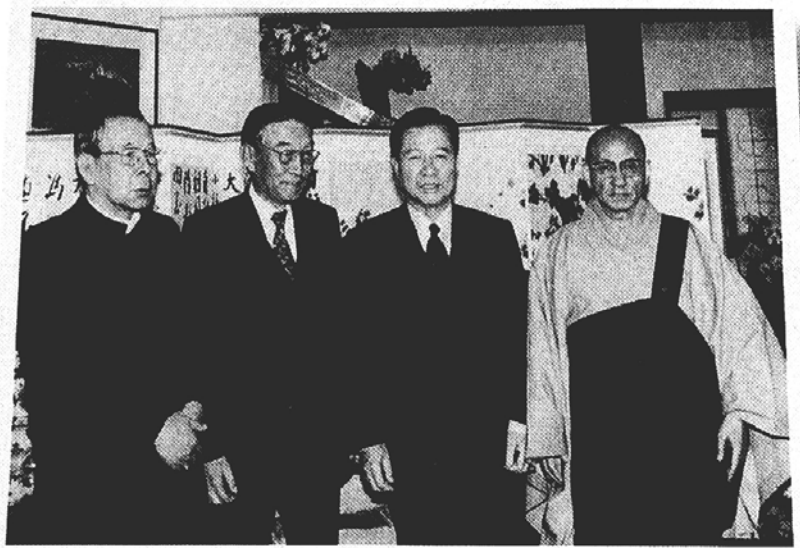
▲지덕: 현 법령에 의해서도 남의 재산에 훼손을 가했다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태여 또 법령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을 초월한 종교인들의 이해와 화합정신의 강화가 선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동은: 이웃 종교의 시설물에 훼손을 가하는 행위가 일어나는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비록 비정상적인 한 개인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할지라도 소속된 종단의 반성과 사과가 뒤따

배울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언론인들이 종교화합을 위해 앞장선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원불교는 올 11월에 개국하는 원음방송이 그러한 역할을 이끄는 언론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종교언론인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대화의 채널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결성된 '종교신문인문협회의' 역할이 보다 활성화 되어 제반 문제가 발생했을때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그 해결을 모색하는 구심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주: 종교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 상당히 구체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앙이란 절대적 가치 체계를 신



김대중 총재는 대통령 당선직후 일산 자택으로 김수환 추기경, 강원봉 목사, 송월주 총무원장을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하며 집권 후 구상을 가다듬었다. (1998년 1월 14일)

한국을 이끄는 사람들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지도자
불교계에는 월주스님이 있습니다.